

유럽통합의 진전과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변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황익주

강원대 인류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에 생겨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을 니나(Nenagh)라는 한 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일랜드인들로서는, 종래 이웃나라 영국과의 대비 속에서만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의 의미를 찾던 데서 벗어나, 유럽의 다른 여러 민족들과의 대비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재해석해 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종래에는 아일랜드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거의 존재한 바 없던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형성해내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영국 이외의 유럽 나라들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민족으로서의 아일랜드 민족 정체성을 주창하기 위한 각종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아일랜드 사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자의 시도들인데, 이는 관광산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음악 및 춤, 그리고 아일랜드 토착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부활 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일랜드의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 고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코자 도시산업사회와는 정반대 되는 사회로서의 아일랜드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들에서 그려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자화상은 아일랜드인들의 민족정체성에 딜레마를 제기하기도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사례연구의 결과가 유럽통합 과정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후속의 연구작업들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한다.

1. 서론

1993년 1월 단일유럽시장의 출범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의 관세 장벽이 사라진 데 이어, 마침내 1999년 1월에는 단일유럽통화인 유로(euro)가 통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적 통합과정은 가장 힘든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과정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역, 사회적 영역 및 문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래 지난 40여 년 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유럽의 통합 과정의 결과로, 비록 영역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유럽인들의 삶의 양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주목할만한 정도의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Barnes and Barnes, 1995 참조). 단순히 이런 소박한 의미만으로도 유럽통합이라는 주제는 유럽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하겠다. 나아가, 유럽의 통합 과정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수의 민족들이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수백 년 묵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시도로서 인류문화사적으로도 심대한 의의를 지니는 현상이다(Borneman and Fowler, 1997: 488-9).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관측자들은 유럽 내부에 존재하는 커다란 문화적 다양성을 들어서 유럽통합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Zetterholm, 1994: 1). 그런 만큼, 유럽의 통합 과정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올바른 파악은 중요한 사회과학적 연구과제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과제를 담당하기에 가장 유용한 개념적 및 이론적 도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인류학일 것이다(Wilson, 2000: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이라는 주제는 유럽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서 경시되어 왔다는 것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유럽인류학에 대해 논평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이다(Wilson, 1993; Goddard, Llobera and Shore, 1994b; Macdonald, 1993b 참조).

한편,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유럽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주제는,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 혹은 ethnic identity) 및 그에 연관된 역사인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자기 역사에 대한 특정한 방식으로의 해석을 통해 타민족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인식하고 주창하는 양상들을 밝혀 내는 작업들이다(예컨대, Tonkin, McDonald and Chapman, 1989; Macdonald, 1993a; Goddard, Llobera and Shore, 1994a; Wilson and Estellie Smith, 1993). 그러나 이러한 민족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유럽통합의 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 즉 ‘유럽통합의 진전 과정 속에서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상이한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표상해 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민족지적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망해 보는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소수(예컨대, Jaffe, 1993; Parman, 1993)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¹⁾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유럽통합이라는 초국가적(supranational)

1) Ruane(1994)은 친유럽론자이든 반유럽론자이든 현대의 아일랜드인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미지들은 몇 가지 유형의 아일랜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들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유럽통합과 민족주의와의 연관성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유럽 문제에 관한 아일랜드 지식인들의 논의들을 분석한 것이어서 민족지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로 다루고 민족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

과정이 진전되는 가운데서 아일랜드인들의 민족정체성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을 아일랜드 공화국 북부 티퍼래리 카운티(County North Tipperary)에 위치한 니나(Nenagh)라는 한 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양상들 가운데서도 이 논문에서의 분석은 지면상의 제약상 아일랜드 공화국의 전국적 수준(national level) 및 니나의 지방적 수준(local level)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들에 한정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들에 관한 자료들은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진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 첫째는 본 연구자가 박사학위논문(Hwang, 1992) 작성을 위하여 1989년 1월부터 1990년 7월까지 수행한 장기적 현지조사였으며, 둘째는 199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4주일 및 1996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2주일 남짓한 기간에 걸쳐, 비록 단기간이긴 했지만, '유럽통합의 진전이 아일랜드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행한 현지조사였다.

II. 문제거리로서의 아일랜드 민족정체성과 유럽통합에의 참여

아일랜드인들은 서구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유달리도 자신들의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문제, 즉 무엇이 '아일랜드인다움'(Irishness)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매몰되어 있다시피 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외부의 관찰자들로부터 흔히 받는다(Ardagh, 1995: 1). 아일랜드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의 문제에 몰두하게 된 역사적 원인은 이웃에 있는 민족인 영국 민족과의 대립관계의 복잡 미묘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회적 상황들 속에서 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족 경계선의 상징적 구성과 재구성--다른 말로 바꾸자면, 민족의 경계선의 상징적 생산 및 재생산--이 전제로서 필요한 것이며, 이는 다른 민족들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²⁾

2)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족 혹은 민족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 관련하여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고, 연구대상자인 아일랜드인들이 스스로 아일랜드인다움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들에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난 결과로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났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민족지적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민족경계선의 상징적 구성과 재구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가지고 본 연구를 민족은 본질적으로 상징적 구성물이라는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한 연구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서 이 논쟁에 관련한 본 연구자의 입장을 간단히 밝혀 둔다. Anderson의 연구(1983) 이래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치부하는 경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Llobera는 적어도 서유럽 근대사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것은 중세 유럽의 역사적 경험 속에 실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음

유럽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변방의 섬나라로서, 그나마도 유럽 본토와의 중간에 보다 큰 또 하나의 섬나라 영국으로 가로 막혀져 있는 섬나라로서, 더구나 수백 년 간을 바로 그 이웃 나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민족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영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규정되어 왔다. 즉,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내용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비영국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식민 지배의 역사가 수백 년에 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영국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의미 내용과 그것을 표현해 줄 상징들을 찾는 일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곤란한 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곤란을 야기하는 요인들 중 가장 큰 것은, 17세기이래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로부터 북아일랜드로 건너간 식민자들의 후예로서 스스로를 영국인(the British)으로 인지하는 북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까지도 포함하면서 ‘Great Britain’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영국인들과 구분되는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의미 내용과 그 상징들을 찾아낸다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유혈사태의 본질이 ‘민족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national identity)임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실천적 곤란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민족들의 경우에는 민족 고유의 언어가 민족정체성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표상으로 기능하지만, 이 점에서도 아일랜드의 현실에서는 심각한 난점이 존재한다. 즉, 아일랜드 민족은 켈트어족에 속하는 토착의 아일랜드어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아일랜드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 결과, 오늘날은 ‘게일타흐트’(Gaeltacht)로 불리우는 주로 서부 해안의 오지에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일랜드어를 일상생활의 일차 언어(first language)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근거로 아일랜드인을 영국인과 구별하기도 곤란하다.

아일랜드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이들 두 가지 요인 외에도 영국 민족과의 구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본 연구자가 1989-90년 간의 현지조사의 기간 중에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일랜드인들은 흔히 자신들이 영국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을

을 논증한 바 있다. 중세 말기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근대 유럽의 주요 민족들의 변별적 정체성들이 이미 어렵פות하게나마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1994: Part I). 본 연구자는 이러한 Llobera의 입장을 진일보한 입장이라 보고 공감을 한다. 비유적으로 바꾸어 표현을 해보자면, 언어나 전통문화 등 실체적 측면에서의 차이점들이 민족간 경계의 어렵פות한 윤곽을 보여주는 밑그림과 같은 것이라면, 그 밑그림에 기초하여 경계선들을 세밀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뚜렷이 그려내는 작업이 민족 경계선의 상징적 구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니고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수백 년 간의 식민 지배의 결과, 그 기원으로 보자면 영국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아일랜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의 일부인 듯 수용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Hwang, 1992: Ch. 3 참조). 그런 까닭에 문화적 특징들을 가지고 두 민족의 경계를 구분하기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통해 아일랜드인들은, 이처럼 곤란하기 이를 데 없는 영국과의 대비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아일랜드 민족 정체성의 의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즉, 민족적 자아의 경계선의 상징적 구성 및 재구성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독립자로서의 민족적 타자(他者)가 영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민족들의 통합체로서의 유럽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1973년 이래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유럽의 통합 과정에의 참여는 아일랜드 경제 및 사회 구조의 근대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아일랜드 공화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입은 커다란 경제적 혜택과, 그에 기초하여 1990년대를 통하여 아일랜드 경제가 구가하고 있는 연평균 7-8%에 달하는 유럽 역사상 초유의 고도 성장(*Statistical Abstract 1995*; EIU, 1997; *Eurostatistics 1998* 참조)은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을 친유럽론자로 변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³⁾

하지만, 이제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 국민으로서의 아일랜드인들에게 유럽통합의 진전은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문제에 관련하여 한 쌍의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그 하나는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새로이 형성해 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의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유럽연합 내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내는 일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 아일랜드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노력들의 양상과 그 함의들을 고찰할 것이다.

III.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이전의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럽인’이라는 의식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유럽연합에 참여하게 된 이래 아일랜드인도 유럽인의 일부라는 의식을 형성해 내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져 왔다. 아일랜드의 역사 자체를 유럽사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기 위한 시도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 예로, 1990년에 서부 아일랜드의 메이요 카운티(County Mayo)

3) 아일랜드 공화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유럽연합에의 가입에 따른 아일랜드 경제 및 사회 구조 근대화의 양상들에 대해서는 황익주(1998)을 참조.

에 있는 한 석기시대의 유적지를 문화유산보존센터로 개발하여 그 준공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당시의 아일랜드 총리 찰스 호히(Charles Haughey)는, 그 유적지는 아일랜드인들이 ‘최초의 유럽인들의 후예’임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연설한 바 있다(Kneafsey, 1995: 147-8). 사례연구의 대상지 니나 지방의 예를 들자면, 각종 경축일에는 니나 타운에 위치한 카운티 청사 옥상에 유럽연합의 깃발이 게양되고, 또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국경일인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에 니나 타운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연례 퍼레이드 때면 유럽연합의 깃발과 회원국들의 깃발을 든 기수단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년에 들어 아일랜드의 타운들이 유럽 본토에 위치한 나라에 속하는 타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인적 교류를 갖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또한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한 예이다.⁴⁾ 자매결연의 대상으로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켈트족으로서의 뿌리를 같이 하는 프랑스의 브르타뉴(Bretagne) 지역에 소재한 타운들로서 1994년 현재 100여 개의 아일랜드 타운들이 브르타뉴 지역의 타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Ardagh, 1995: 327). 니나 타운의 경우에도 브르타뉴에 있는 토네르(Tonnerre)라는 타운과 1989년에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으며, 그에 따라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중 하나로 1990년부터는 두 타운에서 선발된 중고등학생 20여 명씩이 서로 상대방 타운을 방문하여 언어연수를 하면서 관광도 하는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성인들간의 상호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니나 타운에 사는 공무원인 토니 맥더모트(Tony McDermot, 가명) 씨 가족의 경우,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토네르 타운을 방문한 데 이어 대학 시절에는 1년간 유럽연합의 대학생 교환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의 지원을 받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온 바 있는데, 1995년에는 맥더모트씨 부부도 토네르를 방문하고서 매우 좋은 인상을 얻어, 다음 기회에는 좀더 제대로 프랑스라는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50대 중반의 나이에 프랑스어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회원국간의 대학생 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ERASMUS 프로그램-- 여기에 응모하여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3개월 내지 1년 간에 걸쳐 유럽의 대학에 유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에 대해 아일랜드의 대학생들은 열렬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 또한, 아일랜드인들이 종전에는 외국이라고 하면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 정도에 대해서나 관심과 지식을 가졌을 뿐 유럽 본토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지식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

4) Shore(1993: 788-9)에 따르면, 이러한 타운들간의 자매결연(town twinning)은 1984년에 발족한 ‘시민의 유럽 건설을 위한 유럽연합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유럽 연합의 시민들과 세계의 여타 지역에 대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함양하고 홍보하기 위해 실행해 오고 있는 각종의 정책적 조치들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아일랜드인들의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서기 2000년에 이르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바 있는 아일랜드인의 총수는 약 1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Ardagh, 1995: 333), 미래의 아일랜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이들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덕택에 정말로 유럽적 지향을 지니게 되리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아일랜드 민족의 독특성을 주창하려는 노력들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내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들보다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럽의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민족으로서의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을 주창하려는 노력들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영국과의 대비관계 속에서 형성된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인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강화, 불식, 혹은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일랜드 관광산업의 발전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1. 도시산업사회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아일랜드 이미지 강화

영국의 식민지 시절 말기인 19세기 후반 이래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도 아일랜드를 찾는 대부분의 유럽 본토 출신 관광객들⁵⁾이 지니고 들어오는 것이자, 동시에 아일랜드 관광진흥공사가 벌이는 마케팅 활동들에도 담겨져 있는 아일랜드에 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즉, 근대적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는 순박하고, 인심이 후하며, 술과 노래와 춤을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농업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관습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아일랜드라는 것이다(O'Connor, 1993).

이런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광홍보자료이자 동시에 관광상품에 해당하는 예가 사진엽서들이다. 본 연구자가 수집 혹은 관찰한 바 있는 수백종에 달하는 이들 사진엽서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장면들은, 아름다운

5) 사례연구 지방의 산업진흥을 도모하는 준국가기관인 Shannon Development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아일랜드 관광진흥청(Bord Fáilte)에서 나온 자료들을 참조하여 말해준 바에 따르면, 1980년대 말 이래로 유럽 본토 출신 관광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8년에만 해도 영국(Great Britain)으로부터 온 관광객 총수는 약 150만 명인데 비해 유럽 본토로부터 온 관광객의 총수는 약 40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는 영국 관광객수가 약 200만 명인데 비해 유럽 본토로부터 온 관광객수가 약 100만 명으로 훨씬 높은 비율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자연경관들, 그러한 경관을 배경으로 서있는 농민의 작은 전통오두막(cottage)의 풍경,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의 경우에도 늙은 노새가 끄는 수레 위에 걸터앉아 농장에서 짜온 우유통을 싣고 천천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늙은 농부의 모습이라든가 ‘아일랜드의 러시아워’라는 제목 하에 한적한 시골길 위로 늙은 농부가 혼자서 소나 양 몇 마리를 몰고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 등과 같이 현대의 도시산업사회와는 상반된 시간 리듬에 따라 일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는 풍경, 또한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심지어는 일을 하면서도--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기네스(Guinness) 흑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광경 등이다. 모두가 유럽이나 미국의 발달한 도시산업사회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아일랜드라는 이미지를 보는 사람에게 심어주는 풍광들이다. 관광산업이 아일랜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외화획득 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일 뿐만 아니라, 소위 ‘농촌관광’(agro-tourism)을 잘 개발하게 되면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근원이면서도 오늘날 시장의 논리에 의해 소멸의 위협에 직면한 이른바 ‘낙후지역’의 소농들의 잔존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치 아일랜드 경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아일랜드에 대한 소위 ‘그린 이미지’(green image)를 외국인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주로 관광산업의 개발주체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노력들은, 유럽통합의 진전이 민족정체성의 재정립 문제에 관련하여 아일랜드 사회에 하나의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관광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증가하는 유럽 선진국으로부터의 관광객들이 지니고 들어오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전 산업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태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서의 아일랜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완전한 산업사회로 이행하여 이제는 보다 고도의 선진 산업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가고 있는 첨단 하이테크 산업분야의 선진 외국 자본들이 아일랜드로 투자를 해오도록 우수한 교육수준과 기술과 인성 등을 고루 갖춘 현대적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로서의 아일랜드의 상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는 현대 아일랜드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

2. 아일랜드 전통문화의 독특성 부각

아일랜드를 찾는 유럽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아일랜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유럽통합이 제기하는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에의 도전에 대응하는 형태의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는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일랜드 전통 음악--그리고 그에 맞춰 추는 전통 춤--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기의 급증과, 아일랜드 토착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보급 운동들에 대한 대중적 호응의 증가 추세이다.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경제의 영역에서의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로 그것들의 부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종래 아일랜드가 영국에 종속되어 있던 시절에 아일랜드 토착어나 전통 음악--나아가 다른 전통 문화예술 장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행위에 부여되곤 하던 부정적 의미 차원을 떨쳐 버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언어와 문화적 전통의 측면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여러 민족들의 결합체가 유럽연합인 만큼,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일랜드 민족이 나름의 고유한 언어와 전통문화를 지켜 나간다는 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영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근대적 세계로의 발전을 거부하는 편협한 지방주의(parochialism)의 발로'라는 식으로 매도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의미가 바뀐 것이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고유한 언어와 전통문화를 어떤 이유에서든 상실해 왔다는 사실이 같은 약소 민족이면서도 고유한 언어와 전통문화를 잘 지켜온 다른 민족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까지 의미의 변환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수많은 유럽 본토로부터의 관광객들과의 조우로부터 파생하는 영향이다.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은 그 나라나 지방의 진면목(authenticity)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유럽으로부터 아일랜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아일랜드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 즉 산업화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자연경관에 더하여 아일랜드에 고유한 문화예술이나 언어에 마주치게 될 때, 자연히 반가와 하고 그에 대해 찬사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은, 다시 아일랜드인들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이 형성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이러한 일종의 상승작용(positive feedback)을 통하여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아일랜드 전통음악 및 아일랜드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부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1) 아일랜드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부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쇠퇴 일로에 있던 아일랜드 전통음악은 1960년대 이후로 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부활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 같은 부활을 가능케 한 요인들 중에서 우선 꼽아야 할 것은 아일랜드 전통음악가들의 주체적 노력이다. 전통음악의 쇠퇴추세에 위기감을 느낀 일군의 전통음악가들은 1951년 전통음악 및 아일랜드 토착어의 부활 및 발전의 도모를 추구하는 '아일랜드 음

악 운동'(Comhaltas Ceoltóirí Éireann, CCE)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CCE에서는 전국 각처에서 전통음악 강좌들을 개설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오고 있던 켈트민속스포츠의 조직원리를 원용하여 지방 수준에서 카운티(County)와 프로빈스(Province)를 거쳐 전국(All Ireland) 수준으로 경쟁을 통하여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전통음악 축제--이를 아일랜드 토착어로 '플라'(fleadh)라고 부른다--들을 개최하여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체적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객관적 여건이 주어졌던 덕택인데, 그 중의 하나가 외국 관광객의 증가였다. 처음에는 고국을 방문하는 미국 및 영국의 아일랜드계 이민들로 일색이다시피 하였으나 유럽연합에 참여하게 된 이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본토로부터의 외국 관광객들의 증가는, 아일랜드 전통음악의 주된 연주공간이 선술집(pub)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술집이라는 공간에서의 전통음악 연주는,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는 가무음주를 즐기는 소박한 민족으로서의 아일랜드인'이라는, 외국관광객들이 이미 지니고 들어오는 정형화된 이미지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았던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는 사실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아일랜드 전통음악의 공연시간--이를 아일랜드 토착어로 '세이쉴'(seisiún)이라 부른다--이 있는 선술집들이 가장 많은 곳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들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아일랜드 전통음악은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하여 음반 상점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더블린의 대형 음반 상점들에는 수백 종의 아일랜드 전통음악 음반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⁷⁾ 그 음반들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곡들이 모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전통음악은 아니다. 그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은 전통음악의 형식을 활용하여 새로이 작곡된 것들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통음악이 현대 아일랜드 사회의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이 즐기는 음악 장르로서 견실히 자리잡았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또한 CCE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로서의 수많은 전통음악 축제들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일랜드의 여러 지방 도시들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도시에 고유한 연례 전통음악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전통음악 축제가 가히 붐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

6) 아일랜드에는 32개의 카운티가 있고, 몇 개씩의 카운티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얼스터(Ulster), 렌스터(Leinster), 먼스터(Munster), 코노호트(Connaught) 등 4개의 프로빈스가 있다. 그리고 CCE가 주최하는 All Ireland 수준의 음악제에는 4개의 국내 프로빈스 우승자들 외에 영국 및 미국에 사는 아일랜드 이민들 내에서 벌어진 최종 경연대회--이를 All Britain, All America 대회라고 부른다--의 우승자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벌인다.

7) 비단 아일랜드 국내에서만이 아니다. 영국의 대형 음반점들의 포크 뮤직 코너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일랜드 음악이다.

통음악과 더불어 그에 맞추어 추는 ‘케일리’(céilí) 춤--이는 전통시대의 농촌에서 저녁때 이웃집에 마실갔던 주민들이 집의 부엌 겸 식당에서 놀이로서 함께 추던 춤을 가리킨다--이라 불리는 아일랜드 전통 춤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형식의 전통 춤인 ‘세트 댄스’(set dance)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둘 혹은 네 쌍의 남녀가 원을 이루어 추는 춤이다. 케일리 춤이든 세트 댄스이든 지역에 따라 춤곡의 레퍼토리와 춤의 형식에 편차가 있다.

니나 지방에서 아일랜드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적 인기의 증가를 입증하는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니나 출신의 유명한 전통음악 연주가이자 작곡가로 1991년에 사망한 패디 오브라이언(Paddy O’Brien)을 추모하기 위한 전통적 음악과 무용의 축제 “이나흐 패디 오브라이언(Aonach Paddy O’Brien)”이 199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니나 지부 CCE의 간부로서 패디 오브라이언의 딸이기도 한 아일린 오브라이언(Eileen O’Brien)에 따르면, 니나 지부에는 성인 회원 6-70명에 소년부를 합치면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의 유년기였던 1960년대 후반에만 해도 아일랜드 음악을 하는 것은 초중등 학생들 사이에서 시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데 반하여, 요즘은 전통 음악을 하는 학생이 나름대로 ‘멋진’(“cool”)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니나 타운 내에 1990년대 중엽에 전통음악의 음반과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생겨났다는 점도 전통음악에 대한 니나 지방민들의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니나 지방에서도 세트 댄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중장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로서, 세트 댄스를 배우는 동호인 모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니나 지방에서는 니나 타운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발리코몬(Ballycommon) 마을에서 유래한 ‘발리코몬 세트’에 따라 춤을 춘다.

(2) 아일랜드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부활

전통음악보다도 아일랜드 민족을 유럽연합 내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확연히 구별지어 주는 상징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어이다. 왜냐하면 음악은 본질적으로 언어에 비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수용되기 훨씬 수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를 찾아 온 외국관광객은 아일랜드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아일랜드 음악은 얼마든지 듣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아일랜드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일랜드인의 내부적 관점에서든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든, 유럽통합의 진전과정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아일랜드인들의 노력을 가늠해 보는 척도로서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부활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현상이다.

수백 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아일랜드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온 결과, 독립 후 최초로 실시된 1926년의 센서스에 따르면 총인구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54만 명만이 아일랜드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Census of Population, 1926*).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독립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토착어를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리하여 이미 국민 중 소수에게만 일차 언어(first tongue)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어를 국가의 일차적 공용어--다수 국민에게 일차 언어인 영어는 이차적 공용어로 인정되었다--로 헌법상에 명시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 아일랜드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증(Leaving Certificate)을 취득하려면, 그리고 공무원으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아일랜드어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일랜드어 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두 가지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전반적인 아일랜드어 교육 및 보급 사업과 아일랜드어를 일차 언어로 사용하는 지역인 게일타흐트(Gaeltacht)에 대한 각종의 지원 사업을 담당토록 하고, 국영방송국을 통하여 아일랜드어로 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일차 언어로서 아일랜드 토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소추세는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서부 해안 지대를 비롯하여, 오지의 가난한 농촌들로 이루어진 게일타흐트 지역으로부터의 해외 이민이나 아일랜드의 도시 지역으로의 젊은층의 이동을 통한 인구의 감소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온 반면에, 게일타흐트 지역 내에서조차도 토착어 대신 영어를 일차 언어로 습득하는 어린이들의 비율은 증가하여 온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으로의 이민을 꿈꾸는 청소년들이나, 자신들의 자식들만은 게일타흐트 지역의 빈곤하고 희망이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에게는, 게일타흐트만 벗어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는 아일랜드어를 일차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국민 중 1% 남짓한 4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지경이어서,⁸⁾ 아일랜드어가 아일랜드 공화국의 일차적 공용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되었다.

1) 켈트어 학교들의 발전

아일랜드어 교육과 보급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하여 아일랜드어를 부활시키고자 근년에 들어서 주로 도시 지역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은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으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여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러한 현상들 중에 가장 눈 여겨 볼 것은

8)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켈트계 민족의 나라로 현재도 영국의 일부로 남아 있는 웨일즈(Wales)의 경우에는, 웨일즈어(Welsh)를 일상생활의 일차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2%에 이른다고 한다(Ardagh, 1995: 290).

모든 수업을 영어 대신에 아일랜드어를 매개로 하여 진행하는 ‘켈트어 학교’(Gael Scoil)들의 급속한 발전 추세이다. 이들 켈트어 학교들은 게일타흐트 외부에서도 일찍부터 존재하기는 하였으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몇 안 되는 학교들조차도 계속 쇠퇴하는 추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추세는 완전히 반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수 및 학생 수 모두에서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1972년에는 게일타흐트 외부에 위치한 켈트어 초등학교의 수가 11개에 불과하던 데서 1980년대 이래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80개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총수가 아일랜드의 전체 초등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0.6%에서 2.9%로 증가하였다. 또 중등학교의 수는 1980년에 8개에 불과하던 데서 1994년에는 33개로 증가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1995: 표 2.18 & 3.10; Ardagh, 1995: 293). 니나 지방에서는 1989년 가을에 티퍼래리 카운티에서는 최초로 켈트어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현재도 학교운영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피터 월쉬(Peter Walsh, 가명) 씨에 의하면, 운동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5명의 학생에 1명의 교사만이 있었으나 1995년 현재는 학생수 186명에 교사 8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켈트어 학교들이 근년에 들어 크게 각광을 받게 된 요인들로, 이들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기존의 학교들보다 적고, 교사들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학교의 운영방식 면에서 카톨릭 교회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 훨씬 진보적이라는 점, 그리고 중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필수과목으로 배워야 하는 아일랜드어가 이 학교에서는 확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종래의 학교들에서는 영어를 수업의 매개언어로 삼아 아일랜드어를 하나의 시험과목으로서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도 재미없어 하고 실력도 잘 늘지 않는 데 반하여, 켈트어 학교에서는 아일랜드어를 수업의 매개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것을 살아있는 생활언어로서 자연스럽게도 흥미롭게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켈트어 학교가 지니는 또 하나의 큰 매력은, 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년 차인 7세 때부터--아일랜드에서는 초등교육이 4세 때부터 시작되어 2년 간의 유치원 과정을 거쳐 6세 때부터 본 과정을 시작한다--불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니나 학교에서는 아직 교사가 없지만 좀더 크고 오래 된 학교의 경우는 독일어 등과 같은 유럽어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점이라고 월쉬 씨는 설명한다. 보통의 초등학교들에서는 유럽어를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중등학교로 진학하고 나서야 배우기 시작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이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아일랜드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이미 4세 때부터 학교에서는 아일랜드어를, 학교 밖에서는 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양언어적(bilingual) 사고능력을 획득하고 나면, 제3의 언어도 훨씬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언어습득 과정에 관련된 이러한 견해는 월쉬 씨뿐 아니라 켈트어 학교 운동가들

에게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며, 그 밖에도 많은 아일랜드어 진흥운동가들이 근년에 들어 자신들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원용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니나의 켈트어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켈트어 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단적인 이유는 이들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한은 켈트어 학교들의 발전 추세는 지속되리라고 예측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다시, 최근 게일타흐트가 아닌 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어를 잘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미래의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유럽인과 유럽문화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그런 까닭에 경원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인과 유럽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또 우호적인 사람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의 아일랜드어 사용 진흥 운동

다음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초·중·고등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아일랜드어 사용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도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시도들을 주도해 온 것은 아일랜드어 진흥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켈트 동맹’(Conradh na Gaeilge, 영어로는 Gaelic League)이다. 일찍이 1883년에 창립되어 비슷한 시기에 창립된 켈트민속스포츠협회(Gaelic Athletic Association)와 더불어 독립 이전 시기의 아일랜드 문화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한 양대 단체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을 뿐더러, 독립 이후로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서 아일랜드어 진흥운동을 지속해 온 가장 큰 시민운동단체가 바로 켈트동맹이다. 켈트동맹은 각 지부별로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아일랜드어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의 사업들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주최한다. 니나 지부 켈트동맹의 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니나 지부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는 ‘테이블 퀴즈’라는 아일랜드어 퀴즈 경연대회 외에 연례 행사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일랜드어 연극 경연대회,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storytelling) 경연대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일랜드어 여름학교, 그리고 ‘Féile an Aonagh’(니나 축제)로 불리는 연례 축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니나 켈트어 초등학교도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설립과정을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 또, 근년에 들면서 켈트동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니나 지부의 경우 그 단적인 증거로 여름학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1980년대 중엽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2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또 하나의 아일랜드 진흥운동 단체로 ‘켈트의 소

리'(Glór na nGael)라는 것이 있다. 이 단체는 1990년에 켈트동맹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전국의 도시 및 마을들 간에 경쟁을 벌이게 함으로써 아일랜드어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도를 증진시킴을 도모한다. 즉, 전국의 도시와 농촌 마을들을 인구 규모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해당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점들에서의 아일랜드어로 된 간판의 사용 정도, 미사 등 교회행사에서의 아일랜드어의 가미 정도, 아일랜드어 진흥 목적의 지역사회 행사들의 내용과 주민참여도 등을 척도로 삼아 매년 점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를 얻은 도시나 마을들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것이다. 니나 타운의 경우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연속해서 중규모 타운 범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다음에 소개할 시범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이었다.

이들 시민운동 단체들의 노력에 더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학교라는 주어진 장 내에서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local community) 일상생활의 보다 많은 영역 속에서 아일랜드어의 사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언어환경을 아일랜드어에 대해 보다 친화적인 것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목적의 체계화된 시범사업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재정지원 하에 일부 지방들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이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성공적이라는 중간평가를 얻음으로써 이후 몇몇 다른 지방들에서도 유사한 시범사업들이 실시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서,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지인 니나 지방이었다.

‘티퍼래리 아일랜드어 프로젝트’(Tiobraid Árann ag Labhairt, TAL)라는 명칭의 이 시범사업이 니나 지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87년의 일이었다. 그 자신 아일랜드어 교사로서 출발하였다가 북부 티퍼래리 카운티의 교육감(Chief Education Officer)이 되어 일하던 중에 이 프로젝트를 창안한 인물이자 현재까지도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루크 머타(Luke Murtagh, 아일랜드어 표기로는 Lúcas Ó Muirheartaigh)씨는 자신이 당시에 이 같은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주었다. 독립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아일랜드어를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통해서 필수과목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삼아 아일랜드어의 부활을 추구한 결과, 아일랜드어가 일상생활의 일차 언어가 아닌 곳에 사는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아일랜드어를 학교 다니는 동안 마지못해 배워야 하는 지겨운 외국어처럼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문법, 어휘, 독해 등에 치우침으로써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일랜드어를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고대의 언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일랜드어를 가르치는 교사들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아일랜드어를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 1980년대 중엽에 북부 티퍼래리 카운티에서 아일랜드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조차도 아일랜드어로 능숙하게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인 지경이었다고 한다. ‘아일랜드어 교육의 위기’로 느껴지던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일랜드

어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를 구상하고 있던 머타 씨에게 그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었다. 유럽연합은 1980년대에 들면서부터 역내에 존재하는 ‘보다 덜 사용되는 언어들’(Lesser Used Languages), 즉 인구수 면에서 적은 민족들의 고유어들을 보존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1982년부터는 Bureau for Lesser Used Languages라는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그와 같은 목적의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⁹⁾ 그리하여 ‘티퍼래리 아일랜드어 프로젝트’(TAL)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보조금과 그에 상응하는 기금(matching fund)으로서 아일랜드 정부 및 북부 티퍼래리 교육청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 198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¹⁰⁾

TAL 프로젝트의 아일랜드어 진흥에 대한 접근방식의 요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아일랜드어를 살아있는 언어로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재들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의 언어환경 전반을 아일랜드어의 학습과 사용에 보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TAL 프로젝트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후자에 있다. TAL 프로젝트 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의 단체나 기관 혹은 사업체들의 협조를 얻어 지역의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주민들이 아일랜드어에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언어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언어적(bilingual)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어서, TAL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온 지난 10여 년 동안에 지역의 일상생활 여러 영역에서 아일랜드어의 사용 정도가 상당히 늘어났다. 우선, 북부 티퍼래리에 근거지를 둔 두 개의 지방신문과 한 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순전히 아일랜드어만으로 된 것들을 포함, 아일랜드어가 사용된 기사나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또, 상점들을 펠두로 하여 각종 사업체들의 간판, 쇼윈도우, 기타의 홍보물에서 아일랜드어가 보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상점들 가운데는 간판이나 쇼윈도우에 쓰여지는 문구를 아일랜드어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 바 ‘Irish shopfront’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형식의 상점 전면 디자인으로 개조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및 아일랜드 성공회 교회(Church of Ireland) 모두에서, 미사 중 일부분을 아일랜드어로 진행한다든가, 특별한 행사날의 경우에는 미사 전체를 아일랜드어만으로 혹은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똑같이 사용하여 진행한다든가, 혹은 기도문이

9) 이는 유럽의 문화적 통합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내에 존재하는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바탕 위에서 ‘유럽인’으로서의 통일성을 창출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유럽연합 문화 정책의 기초(Shore 1993: 791-4)에 부응한 정책이다.

10) 1993-94 사업년도의 경우, 총예산 약 12만 파운드 중 6만 3천 파운드가 유럽연합의 보조금이었다(TAL teo, 1994).

나 찬송가 중 어떤 것들을 아일랜드어로 읽거나 노래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회의 활동 중에 아일랜드어가 사용되는 정도가 증가해 오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가들이나 스포츠 클럽까지도 포함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의 간부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행하는 연설들 중간에 아일랜드어 표현들이 사용되는 정도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적어도 시작과 끝 부분의 인사말 정도는 아일랜드어로 하는 것이 이제는 관례처럼 되었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의 축제들의 홍보물이나 연설 등에서 아일랜드어가 사용되는 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TAL teo. 1994 참조).

TAL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장기적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언어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사업인 만큼 그것은 대단히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의 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변화의 양상들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분명히 사업은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이미 다른 몇몇 지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을 뿐더러,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방들에서 이를 모델로 한 사업들이 전개되리라고 보아도 무리한 예측은 아닐 듯하다. 이는 켈트어 학교가 계속 발전하리라는 전망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아일랜드어의 부활--물론 독립 당시의 아일랜드어 진흥운동가들이 꿈꾸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아일랜드어를 일차 언어로 쓰는 형태로서는 아니지만--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럽의 통합 과정에 참여하게 된 이래 아일랜드인들의 민족정체성에는 주목할만한 변환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아일랜드인들의 의식 속에 거의 존재한 바 없던 '유럽인'의 일부라는 의식이 빠르게 생성되고, 영국 이외의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전통음악 및 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토착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부활 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 다른 여러 민족들과 구분되는 아일랜드인의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자긍심이 고양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도시산업사회와는 정반대 되는 나라로서의 아일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노력들에서 그려지는 시대착오적인 자화상은 아일랜드인들의 민족정체성에 딜레마를 야기하기도 한다.

논문을 맺으면서, 21세기에도 계속될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 있어서 유럽 내부에 존재하는 커다란 민족적 및 문화적 다양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밝히는 앞으로의 연구작업에 대해 아일랜드의 사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함의를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대

한 관심도 지식도 거의 없었던 아일랜드인 이었지만, 현재에는 그 압도적 다수가 친 유럽론자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아일랜드의 사례는 유럽통합을 옹호하고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힐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 요인이 유럽연합에의 참여가 아일랜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커다란 경제적 혜택임은 아일랜드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이 공공연히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 외에도 유럽연합에의 참여에 따른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의 양상들이 아일랜드인들의 강한 문화적 민족주의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유럽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특히 아일랜드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콤플렉스에 가까운 태도를 지니고 있던 아일랜드의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유럽연합에의 참여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아일랜드의 토착어와 전통 음악 및 춤 등등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부활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종래의 편협한 무조건적 반 외세주의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친 유럽론자로 바뀐 점이 유럽에 대한 일반적 아일랜드인들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촉매 요인이 되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유럽연합에의 참여에 따라 발생한 변화들이 이들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보기에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문화적으로는 아일랜드인으로서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평가되는 것이었다면, 아일랜드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반발로 인해 아일랜드인들 사이에서의 친 유럽적 태도의 확산은 크게 억제되었으리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후속의 연구들에서는, 소수민족들까지도 포함한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럽통합의 진전이 그들의 민족정체성에 어떠한 실재적 영향 및 인지된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그것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재적 및 인지된 영향과는 어떠한 성격의 상호관계가 있는가를 인류학의 민족지적 사례연구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성과들의 기초 위에 여러 민족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유럽통합이라는 새로운 인류문화사적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심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만을 지적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유럽통합의 진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아일랜드 민족 정체성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해내는 작업까지는 수행치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난해한 인식론적 내지 방법론적 선결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로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변화들을 가지고 구분되는 유럽통합 과정의 단계들과 민족정체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단계들이 어떠한 상응관계를 지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분석에 있어서 지방적 수준과 아일랜드 전국적 수준, 나아가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수준들 사이의 상응관계를 어떻게 파악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본 연구보다도 훨씬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민족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황익주. 1998.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 니나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2): 81-104.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rday, John. 1995. *Ireland and the Irish: Portrait of a Changing Societ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Barnes, Ian and Pamela M. Barnes. 1995. *The Enlarged European Union*. London: Longman.
- Borneman, John and Nick Fowler. 1997. "Europeaniz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6: 487-514.
- Census of Population*. 1926 - 1991. Dublin: Central Statistics Office.
- Department of Education. 1995. *Statistical Report 1993/94*. Dublin: Stationery Office.
-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7. *Country Report: Ireland: 1st Quarter 1997*.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 Eurostatistics 1998*. Brussels: Eurostat.
- Goddard, Victoria, Joseph Llobera and Cris Shore. (eds.) 1994a. *The Anthropology of Europe: Identities and Boundaries in Conflict*. Oxford: Berg.
- Goddard, Victoria, Joseph Llobera and Cris Shore. 1994b. "Introduction: The Anthropology of Europe." in *The Anthropology of Europe: Identities and Boundaries in Conflict*. pp. 1-40.
- Hwang, Ik-joo. 1992. *Class, Religion, and Local Community: Social Grouping in Nenagh, Republic of Ireland*. Ph. D. Thesis. University of Oxford.
- Jaffe, Alexandra. 1993. "Corsican Identity and the Europe of Peoples and Regions." in T. Wilson & E. Estelle Smith. (eds). *Cultural Change and the New Europe*. pp. 61-80.
- Kneafsey, Moya. 1995. "A Landscape of Memories: Heritage and Tourism in

- Mayo." in U. Kockel. (ed.) *Landscape, Heritage and Identity: Case Studies in Irish Ethnography*.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pp. 135-53.
- Llobera, Joseph. 1994. *The God of Modernity: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m in Western Europe*. Oxford: Berg.
- Macdonald, Sharon. (ed.) 1993a. *Inside European Identities: Ethnography in Western Europe*. Oxford: Berg.
- Macdonald, Sharon. 1993b. "Identity Complexes in Western Europe: Soci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in S. Macdonald. (ed.) *Inside European Identities*. pp. 1-26.
- O'Connor, Barbara. 1993. "Myths and Mirrors: Tourist Images and National Identity." in B. O'Connor and M. Cronin. (eds). *Tourism in Ireland: A Critical Analysis*. Cork: Cork University Press. pp. 68-85.
- Parman, Susan. 1993. "The Future of European Boundaries: A Case Study." in T. Wilson and E. Estellie Smith. (eds.) *Cultural Change and the New Europe*. pp. 189-202.
- Ruane, Joseph. 1994. "Nationalism and European Community Integration: The Republic of Ireland." in V. Goddard, J. Llobera and C. Shore. (eds.) *The Anthropology of Europe*. pp. 125-141.
- Shore, Cris. 1993. "Inventing the People's Europe: Critical Approaches to European Community Cultural Policy." *Man(N.S.)* 28(4): 779-800.
- Statistical Abstract 1995*. Dublin: Central Statistics Office.
- TAL(Tiobraid Árann ag Labhairt) teo. 1994. "Progress Report: September 1993 — August 1994 and the Future Evolution of TIOBRAID ÁRANN ag LABHAIRT teo." (미간행 보고서임)
- Tonkin, Elizabeth, Maryon McDonald and Malcolm Chapman. (eds.) 1989. *History and Ethnicity*(ASA Monographs 27). London: Routledge.
- Wilson, Thomas. 1993. "An Anthropology of the European Community." in T. Wilson and M. Estellie Smith. (eds.) *Cultural Change and the New Europe*. pp. 1-23.
- Wilson, Thomas & M. Estellie Smith. (eds.) 1993. *Cultural Change and the New Europe: Perspectives on the European Community*. Boulder: Westview Press.
- Wilson, Thomas. 2000. "The Obstacles to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 in the Northern Ireland Borderlands." *Human Organization* 59(1): 1-10.
- Zetterholm, Staffan. 1994. "Introduction: Cultural Diversity and Common Policies." in S. Zetterholm. (ed.) *National Cultures and European Integration: Exploratory Essays on Cultural Diversity and Common Policies*. Oxford: Berg. pp.1-12.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Changes in Irish National Identity: An Anthropological Case Study

Ik-Joo Hwa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based upon a case study in Nenagh, a small town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changes in the Irish national identity stemming from the progres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anks to participating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rish people have obtained the opportunities to reinterpret their national identity, which hitherto had been interpreted solely in contradistinction to the English or British people. Thus, on the one hand,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newly create the consciousness that the Irish have been, and are, a integral part of the European people, a thought which had hardly ever existed in the minds of the Irish. As a result, the recent years has seen the steady improvement in the level of Irish people's general interests and knowledge vis-à-vis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various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express and emphasize their identity as a nation with unique traditional cultural features which render the Irish distinct from other European nations. It is the latter aspects of the Irish national identity, which are being promoted in close relationship to the Irish tourism industry, that is more pronounced in contemporary Ireland. As a result, as can be seen from the revival of the popular interest in the traditional Irish music, dance, and above all, Irish language, Irish people's pride in their unique cultural heritage has been considerably enhanced over the years since Ireland joined the EU. However, the anachronistic self-image of the Ireland as the anti-thesis of the urban-industrial society, which is being portrayed in many promotion attempts of Irish tourism to attract European tourists, poses a serious dilemma to the Irish national identity. In conclusion, one implication of this case study for the subsequent research on the cultural aspect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s considered.

황익주.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Tel. 033-250-6875. E-mail: ikjhwang@cc.kangwon.ac.kr